

경제

광주·전남 경기 '봄기운'

제조업 생산 3개월째 증가... 건설 활동 활기
車·화학 등 1월 수출 급증... 소비·자금 호조

지난해 10월 이후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생산과 건설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출과 소비도 크게 늘어 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광주·전남의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과 자동차, 가전 등의 호조로 전년 같은 달보다 31.0% 늘어 지난해 10월 6.8%, 11월 22.7%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12월 중 건설활동은 건축 착공면적이 전년 같은 기간의 33.1%에서 79.

2%로, 건축 허가면적도 1.2%에서 43.9%로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12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만368호로 전 달보다 838호 감소했다.
소비도 호조를 보여 대형마트(8.1%)와 백화점(12.1%)의 판매가 강추위에 따른 겨울의류, 계절 가전 등의 판매 호조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1월 중 수출도 광주의 자동차(104.4%), 가전(56.2%), 반도체(20.0%)와 전남의 석유화학(60.5%), 철강제품(72.2%)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1월 중 기업투자자금은 어

음부도율(0.33%→0.25%)이 전달보다 하락하고 부도업체 수(10개→6개)도 감소하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1월 중 고용사정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수(12월 : -19만7천명→1월 : -19만5천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사업·개인·공공·기타 부문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제조업 생산 호조 등에 따라 13만3천명이 증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상'

타이어용 특수밸브 국산화 성공

죽초액 탈취제 개발 벤처기업

대동밸브 임형식 대표

대동밸브(주)는 타이어 설비용 특수밸브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
지난 1987년 8월 설립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타이어 가류설비용 특수밸브를 국내 최초로 생산 공급해 국내 타이어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최신 정밀가공·시험 설비와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다. 27명의 직원이 지난해 내수 11억2천700만원과 수출 331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내수 30억원, 수출 5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수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 제품을 수출, 2003년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과 중소기업청 수출 유망 중소기업, 수출 300만불 탐 등을 수상했다.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4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대동밸브(주) 박상혁 차장, 허관 첨단환경(주) 대표이사, 임형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4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대동밸브(주) 박상혁 차장, 허관 첨단환경(주) 대표이사, 임형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동밸브는 세계 자동차산업 경기 상승으로 타이어 제조사의 신설 및 증설이 활발해 판매량을 내수에서 수출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수출 국가 또한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 러시아, 유럽으로 확대하고 있다.
임형식 대표이사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기업을 존속케 한다"는 신념으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가격 경쟁력과 더 빠른 납품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첨단환경 허관 대표

ISO 9001, 환경마크 인증 등 품질경영에 앞장서고 있고, 순천대와 단국대, 곡성생물방제센터 등과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R&D 투자를 통해 4건의 특허 등록과 2건의 특허 출원을 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미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보조사료를 개발해 친환경 축산사업에 선도하고 있다. 고효율·저에너지형 기체 실내 탈취기 개발과 죽초액을 이용한 약의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창업대전과 전남 대학 BI센터 우수업체 대상 수상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환경표지마크 등을 획득,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첨단환경은 매년 2배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5명의 직원이 2008년 5억6천만원, 지난해 11억원의 매출을 올린 '알짜' 회사다. 올해는 2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제일대학 교수 출신인 허관 사장은 "죽초액을 이용한 천연 탈취제와 항생제가 필요없는 친환경 보조사료를 통해 축산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산은 "아시아나항공 1200억 투입"

이번주 채권단 동의서 받아... 석화 신규 자금 지원도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신규 긴급 자금을 수혈키로 했다. 이로써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대상 4개 계열사에 새로 투입되는 자금은 모두 5천6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번 주부터 채권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천2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제외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3곳이 채권단으로부터 4천600억 원의 자금을 수혈받게 된다.
앞서 금호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협력업체 자금결제유증으로 2천800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1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3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 한도를 새로 열어 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반대에 신규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쏘나타 리콜

기아차 美 시장공략 본격화

잠금장치 결함 4만7천여대

연간 시장점유율 첫 3% 돌파 전망

현대자동차는 신형 쏘나타 도어 잠금장치의 결함(간섭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및 미국에서 생산된 해당 차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품질문제를 안전문제로 격상시켜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국내에서 지난해 12월6일 이전 생산된 약 4만6천대이고, 미국에서는 지난 16일 이전 생산분 중 지금까지 판매된 1천300여대다.
/연형뉴스

기아자동차가 조지아 공장 가동능력이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미국시장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34만7천대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포터(세라토 포함) 7만3천대, 스포티지 4만3천대, 쏘렌토 3만2천대 등 총 30만대를 판매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경우 기아차의 연간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8년 2%(27만대), 2009년 2.9%에 이어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는 이미 지난 1월 미국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0.1%, 전월 대비 5.1% 증가한 2만2천123대를 판매하며 올해 미국시장 공략의 포문을 열었다.
기아차는 올해 미국시장에 기아차의 첫 현지 생산 모델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쏘렌토R를 비롯해 스포티지R, TF(로체 후속모델) 등 신차들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쏘렌토R는 판매 개시 첫 달인 지난 1월에만 7천398대가 판매돼 시보레 이퀴노스와 도요타 라브4에 이어 미국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서 판매 3위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신형시장 개척과 소형차 판매 확대를 동력으로 2015년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연간 600만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연형뉴스

CEO 혈액형은 B형?

10명중 4명 꼴... A형은 재무회계·O형은 영업

기업의 대표이사(CEO) 10명 중 4명 가량이 혈액형이 B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형은 재무회계, O형은 영업 등 특정 직무에 특정 혈액형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jww. jobkorea.co.kr)가 최근 직장인 645명을 대상으로 '혈액형과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혈액형별 A형은 재무회계에 45.3%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고, 이어 마케팅(39.4%), 기

획(39.7%), 광고홍보(35.5%) 순이었다. B형은 판매서비스직(46.7%), 디자인(40.9%), 영업지원(39.6%) 분야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O형은 국내영업 분야가 45.7%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39.4%), 인사(34.1%), 재무회계(32.8%)가 뒤를 이었다.
AB형은 전문직(37.0%)과 정보통신(30.6%) 분야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12.83 (-16.07)
코스닥지수 514.04 (+0.14)
금리 (국고채 3년) 4.14% (-0.02)
원·달러 환율 1,153.20원 (+4.90)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및 백양사자)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벨리스타워빌딩 임대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유아유아용품,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밀리레스토랑, 전문식당, 유아유아용품,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비독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 영어, 수학, 입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키아이스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대지매매○
○점포임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